당뇨병 치료제

자누맥스엠

엑스알서방 정 50/500mg, 50/1000mg 100/1000mg

[시타글립틴염산염수화물, 메트포르민염산염]

자누맥스엠 엑스알서방정

작성일자 : 2023. 04. 11 전문의약품

[원료성분 및 분량] 1정 중

자누맥스엠엑스알서방정50/500mg
- 유효성분 : 시타글립틴염산염수화물(별규) ····· 56.7mg
  (시타글립틴으로서 50mg)
  메트포르민염산염(EP) ····· 500.0mg
- 첨가제(타르색소) : 청색1호, 청색2호
- 기타 참가제 : 규화미결정셀룰로오스, 무수인산수소칼슘, 스테아릴푸마르산나트륨, 오파드라이 OX321A505009블루,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콜로이드성이산화규소, 크로스카멜로오스나트륨, 하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 히프로멜로오스

자누맥스엠엑스알서방정50/1000mg
- 유효성분 : 시타글립틴염산염수화물(별규) ····· 56.7mg
  (시타글립틴으로서 50mg)
  메트포르민염산염(EP) ····· 1000.0mg
- 첨가제(타르색소) : 청색2호
- 기타 참가제 : 규화미결정셀룰로오스, 무수인산수소칼슘, 스테아릴푸마르산나트륨, 오파드라이 OX321A610003그린,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콜로이드성이산화규소, 크로스카멜로오스나트륨, 하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 히프로멜로오스

자누맥스엠엑스알서방정100/1000mg
- 유효성분 : 시타글립틴염산염수화물(별규) ····· 113.4mg
  (시타글립틴으로서 100mg)
  메트포르민염산염(EP) ····· 1000.0mg
- 첨가제(타르색소) : 청색1호, 청색2호
- 기타 참가제 : 규화미결정셀룰로오스, 무수인산수소칼슘, 스테아릴푸마르산나트륨, 오파드라이 OX321A605009블루,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콜로이드성이산화규소, 크로스카멜로오스나트륨, 하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 히프로멜로오스

[성 상]
- 50/500mg, 100/1000mg : 밝은 파란색으로 양면이 볼록한 타원형의 서방성 필름코팅정
- 50/1000mg : 밝은 녹색으로 양면이 볼록한 타원형의 서방성 필름코팅정

[효능 · 효과]
이 약은 시타글립틴과 메트포르민의 병용투여가 적절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투여하십시오.

[용법 · 용량]
항당뇨요법에 있어서 이 약의 용량은 각 성분의 1일 최대권장용량인 시타글립틴 100mg과 메트포르민 2000mg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각 환자의 현재 치료요법, 유효성, 내약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이 약은 메트포르민으로 인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식사와 함께 1일 1회 되도록 저녁 시간에 복용하며, 점진적으로 용량을 증량합니다. 서방성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약은 쪼개거나 부수거나 갈거나 씹지 말고 삼켜야 합니다. 이 약이 불완전하게 용해되어 대변으로 배설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대변으로 배설된 물질에 약물의 주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 만약 환자가 이 약이 대변 중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보고할 경우, 의료진은 previous 서방성 제제에 대한 대체 치료요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2. 메트포르민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 메트포르민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환자에게 대한 이 약의 권장 초기용량은 1일 1정 1회 시타글립틴 100mg 과 메트포르민 기존 투여 용량입니다.
- 시타글립틴과 메트포르민의 병용요법에서 이 약으로 전환하는 환자는 시타글립틴과 메트포르민의 기존 투여 용량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메트포르민의 기존 투여 용량으로 속방정을 1일 2회, 1회 850mg 또는 1000mg 을 투여하던 환자는 이 약 50/1000mg 서방정 1일 1회 2정 용량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메트포르민과 설포닐우레아의 병용요법, 메트포르민과 인슐린의 병용요법, 메트포르민과 치아졸리딘디온의 병용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이 약의 초기용량은 1일 1정 1회 시타글립틴 100mg 이며, 메트포르민의 초기용량은 환자의 혈당치와 기존 투여용량에 고려하여야 합니다. 메트포르민으로 인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을 줄이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용량을 증량합니다. 설포닐우레아로 또는 인슐린과 병용투여시에는 설포닐우레아 또는 인슐린 유발 저혈당 발생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설포닐우레아 또는 인슐린 용량의 감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용상의주의사항 5. 일반적주의 항 참조).
이전에 다른 경구용 혈당강하제로 치료하던 환자에서 이 약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한 연구는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제2형 당뇨병 치료요법의 어떠한 변화도 혈당조절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적절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신장에 환자
이 약은 중등도 신장애 stage 3a (크레아티닌 청소율(CrCl) ≥ 45 및 (60mL/min 또는 사구체 여과율(eGFR) ≥ 45 및 (60mL/min/1.73m²) 환자 중, 유산신증 위험을 증가시킬만한 다른 증상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용량 조절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트포르민의 시작용량은 1일 1회 500mg 또는 850mg 투여이므로, 이 약으로 치료를 시작하시는 안됩니다. 메트포르민 최대 권장용량은 1일 1000mg입니다. 신기능을 3-6개월 마다 주의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만약 CrCl (45mL/min 또는 eGFR (45mL/min/1.73m²으로 신기능이 감소되는 경우 이 약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5. 간장에 환자
이 약은 메트포르민 성분으로 인해 간기능 장애 환자에게 투여하시는 안됩니다 (사용상의주의사항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마십시오 항 참조).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시타글립틴
1) 과민반응: 시판 후 시타글립틴을 투여한 환자에서 중증의 과민반응이 보고되었으며, 이 반응은 아나필락시스, 혈관부종 및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을 포함한 박리성피부염증을 포함한다. 이것은 불특정 다수의 안구표단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에, 발생 빈도를 신뢰성 있게 예측하거나 약물노출과의 인과관계를 확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반응의 시작은 약물 치료 개시 후 첫 3개월 이내에 발생하였으며, 첫 용량 이후에 보고된 것도 있습니다. 만약 과민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이 약을 중단하고 발생의 다른 잠재적인 이유를 평가하고 다른 당뇨치료요법을 실시합니다. (4. 이상반응, 2) 시판 후 이상반응 항 참조).
2) 췌장염: 시타글립틴을 투여한 환자에서 치명적/비치명적 출혈성 또는 괴사성 췌장염을 포함하는 급성 췌장염이 보고되었습니다 (4. 이상반응 참조). 이 약 투여 시작 후 췌장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주의깊게 관찰하여야 합니다. 만약 췌장염이 의심될 경우, 이 약 및 다른 의심 가능성이 있는 약물의 투여를 중단해야 합니다.

메트포르민염산염
심한 유산신증 또는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유산신증으로 인한 사망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마십시오.
1) 중등도(stage3b) 및 중증의 신장애 환자(크레아티닌 청소율 (45mL/min 또는 사구체 여과율 (45mL/min/1.73m²), 탈수, 심각한 감염, 심혈관계 허혈(쇠), 급성 심근경색, 폐혈증과 같은 신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급성 상태
2) 급성 및 불안정형 심부전 환자
3) 방사선 요오드 조영물질을 혈관 내 투여하는 검사(예 : 정맥요로조영술, 정맥담관조영술, 혈관조영술, 조영제를 사용한 컴퓨터단층촬영술 등)를 받는 환자(급성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고, 이 약을 투여 받는 환자에서는 유산신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검사가 계획된 환자 중 사구체여과율) 60mL/min/1.73m²인 경우는 적어도 검사 시점 또는 시전에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하고, 48시간 이내에는 재투여가 불가능합니다. 신기능 재평가 후 추가 손상 위험이 없을 것으로 판명된 이후에만 치료를 재개합니다. 중등도 신장애 환자의 경우(사구체여과율 ≥ 45 및 (60mL/min/1.73m²), 이 약은 요오드조영제 투여 48시간 전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며 48시간 이내에는 재투여가 불가능합니다. 신기능 재평가 후 추가 손상 위험이 없을 것으로 판명된 이후에만 치료를 재개합니다.)
4) 이 약에나 이 약의 성분에 대하여 아나필락시스 또는 혈관부종과 같은 과민성이 알려진 환자 [1. 경고 및 4. 이상반응, 2) 시판 후 이상반응 항 참조]
5) 제1형 당뇨병, 유산신증, 혼수를 수반하거나 그렇지 않은 당뇨병케톤산증을 포함하는 급성 또는 만성 대사성산증 환자 및 케톤산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제1형 당뇨병과 당뇨병케톤산증은 인슐린으로 치료합니다.)
6) 당뇨병성 전혼수
7) 중증감염증 또는 중증 외상성 전신장애 환자에서는 이 약의 치료는 일시적으로 중지되어야 하고 환자의 경구적 섭취가 회복되고 신기능이 정상으로 판명될 때 치료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몸법용량 항 참조). 수술 과정의 경우에(음식과 수액의 섭취에 제한이 없는 가벼운 수술은 제외) 이 약은 수술 48시간 전에 일시적으로 중지되어야 하고, 최소 48시간이 지난 후 신기능이 정상이라고 판명된 후에 다시 치료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8) 영양불량상태, 기아상태, 쇠약상태, 뇌하수체기능부전 또는 부신기능부전 환자
9) 간 기능장애(손상된 간 기능은 유산신증의 몇몇 경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상적 또는 실험실적으로 간 질환의 증거가 있는 환자에게는 이 약의 투여를 피해야 합니다.), 폐경색, 중증의 폐기능장애 환자 및 기타 저산소혈증을 수반하기 쉬운 심폐, 괘도한 알코올 섭취자, 탈수증, 쇠약, 구토 등의 위장장애 환자
10) 임부, 임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하십시오. (유산신증과 저혈당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불규칙한 식사, 식사 섭취량 부족 2) 격렬한 근육운동 3) 상호작용이 있는 약물을 투여하는 환자

4. 이상반응
1) 임상시험
임상시험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조건 하에서 실시되므로 임상시험에서 관찰된 이상반응 발생률은 다른 약물의 임상시험에서의 비율과 직접적으로 비교될 수 없으며, 실제 사용환경 하에서 관찰된 비율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위약대조 임상시험에서 메트포르민을 단독투여하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시타글립틴 100mg을 추가 시 내약성이 우수하였습니다. 시타글립틴과 메트포르민을 병용투여한 환자에서 보고된 이상반응 발생률은 위약과 메트포르민을 병용투여한 환자에서 보고된 것과 유사하였습니다.
시타글립틴과 속방형 메트포르민의 초기 요법
24주간 실시된 위약 대조 요인계개 임상시험(factorial trial)에서 시타글립틴 50mg과 속방형 메트포르민 500mg 또는 1,000mg을 1일 2회 초기병용 투여 시 인과관계 평가와 관계없이 5% 이상의 빈도로 보고되고 위약보다 빈번히 보고된 이상반응 † 과 같습니다.

표 1. 시타글립틴과 속방형 메트포르민의 초기병용요법: 인과관계 평가와 관계없이 5% 이상의 빈도로 보고되고 위약보다 빈번히 보고된 이상반응 †

	환자수 (%)			
	위약	시타글립틴 100mg 1일 1회	속방형 메트포르민 500 또는 1000 mg씩 1일 2회 †	시타글립틴 50mg 씩 1일 2회 + 속방형 메트포르민 500 또는 1000 mg씩 1일 2회 †
	176명	179명	364명	372명
설사	7 (4.0)	5 (2.8)	28 (7.7)	28 (7.5)
상기도감염	9 (5.1)	8 (4.5)	19 (5.2)	23 (6.2)
두통	5 (2.8)	2 (1.1)	14 (3.8)	22 (5.9)

† Intent-to-treat 피험자군
† 메트포르민 저용량, 고용량을 투여한 환자의 통합자료.

속방형 메트포르민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환자에서의 시타글립틴 추가 병용투여
24주의 위약 대조 임상시험에서 1일 2회 속방형 메트포르민을 복용하는 환자에 시타글립틴 100mg을 추가 병용투여 시 인과관계 평가와 관계없이 5% 이상의 빈도로 보고되고 위약보다 빈번히 보고된 이상반응은 저혈당(표 3 참조)과 두통(시타글립틴 6.9%, 위약 2.7%)이었습니다.
속방형 메트포르민, 로시글리타존과 시타글립틴의 병용투여
로시글리타존과 속방형 메트포르민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의 시타글립틴 100mg 추가 병용투여 위약대조 임상시험(시타글립틴 118명, 위약 97명)에서 18주까지 인과관계 평가와 관계없이 5% 이상의 빈도로 보고되고 위약보다 빈번히 보고된 이상반응은 상기도감염(시타글립틴 5.5%, 위약 5.2%)과 비인두염(6.1%, 4.1%)였습니다. 54주의 결과에서는 상기도감염(시타글립틴 15.5%, 위약 6.2%)과 비인두염(11.0%, 9.3%), 말초부종(8.3%, 5.2%) 및 두통(5.5%, 4.1%)이었습니다.
속방형 메트포르민, 인슐린과 시타글립틴의 병용투여
인천된 용량의 인슐린과 속방형 메트포르민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의 시타글립틴 100mg 추가 병용투여 위약대조 24주 임상시험(시타글립틴 229명, 위약 233명)에서 인과관계 평가와 관계없이 5% 이상의 빈도로 보고되고 위약보다 빈번히 보고된 유일한 이상반응은 저혈당이었습니다 (표 3 참조). 인슐린 강화 기간(±속방형 메트포르민) 동안 추가요법으로 시타글립틴을 투여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또 다른 24주 임상시험의 시타글립틴과 속방형 메트포르민을 복용한 환자에서 인과관계 평가와 관계없이 5% 이상의 빈도로 보고되고 위약과 속방형 메트포르민 투여군보다 빈번히 보고된 이상반응은 없었습니다.
저혈당
모든 연구(5개)에서 저혈당 이상반응은 모든 중상이 있었던 저혈당 보고에 근거하였습니다. 혈당측정이 꼭 수반되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대부분의 저혈당 보고(77%)는 혈당측정 시 70mg/dL 이하였습니다. 시타글립틴과 속방형 메트포르민을 설포닐우레아 또는 인슐린과 병용투여 했을 때 하나 이상의 저혈당 이상반응을 나타낸 환자의 비율은 위약군보다 높았습니다 (표 3 참조).

표 3. 시타글립틴과 속방형 메트포르민을 설포닐우레아 또는 인슐린과 병용투여한 위약대조 임상시험 : 인과관계 평가와 관계없이 보고된 저혈당의 발생률 *

	글리메피리드 또는 글리메피리드 및 속방형 메트포르민과의 추가 병용요법 (24주)	시타글립틴 100mg + 속방형 메트포르민 + 글리메피리드 (N=116명)	위약 + 속방형 메트포르민 + 글리메피리드 (N=113명)
	총 발생수 (%)	19 (16.4)	1 (0.9)
	비율(보고건/환자-년수) †	0.82	0.02
	중증의 저혈당 (%) †	0 (0.0)	0 (0.0)
	인슐린 용량의 인슐린 또는 인천된 용량의 인슐린 및 속방형 메트포르민과의 병용요법 (24주)	시타글립틴 100mg + 속방형 메트포르민 + 인천된 용량의 인슐린 (N=229명)	위약 + 속방형 메트포르민 + 인천된 용량의 인슐린 (N=233명)
	총 발생수 (%)	35 (15.3)	19 (8.2)
	비율(보고건/환자-년수) †	0.98	0.61
	중증의 저혈당 (%) †	1 (0.4)	1(0.4)
	용량 조절 중인 인슐린 또는 용량 조절 중인 인슐린 및 속방형 메트포르민과의 병용요법 (24주)	시타글립틴 100 mg + 속방형 메트포르민 + 용량 조절 중인 인슐린 (N=286명)	위약 + 속방형 메트포르민 + 용량 조절 중인 인슐린 (N=283명)
	총 발생수 (%)	71 (24.9)	107 (37.8)
	비율(보고건/환자-년수) †	1.7	3.5
	중증의 저혈당 (%) †	8 (2.8)	11 (3.9)

* 저혈당 이상반응은 모든 중상이 있었던 저혈당 보고에 근거하였으며 혈당 측정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Intent to treat 군
† 총 발생수에 근거함 (한 사람이 여러 건을 보고할 수도 있음)
† 중증의 저혈당은 의학적 처치를 필요로 하거나 의식이 저하된 수준이거나 의식을 잃거나 발작하는 경우로 정의되었습니다.

저혈당 이상반응의 총 발생빈도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혈당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위약군에서 0.6%, 시타글립틴 단독투여군에서 0.6%, 속방형 메트포르민 단독 투여군에서 0.8%, 속방형 메트포르민과 시타글립틴을 병용투여한 군에서 1.6%였습니다. 속방형 메트포르민 단독 투여군 환자에 혈당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는 시타글립틴 추가 병용시 1.3%, 위약 추가 병용시 2.1%였습니다.
로시글리타존 및 속방형 메트포르민에 시타글립틴을 추가 병용투여한 연구에서 18주까지 저혈당의 발생 빈도는 시타글립틴 투여군에서 2.2%, 위약 투여군에서 0.0%였고, 54주까지는 각각 3.9%와 1.0%였습니다.
혈역징후 및 심전도(ECG)
시타글립틴과 속방형 메트포르민 병용투여로 인하여 혈역징후 또는 ECG(QTc 간격 포함)에서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췌장염
시타글립틴 100mg/일 군(N=5429)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조군(혈성대조약 또는 위약) (N=4817)에 무작위 배정된 10,246명 환자에 대한 19개 이중맹검 임상시험의 결과를 통합 분석하였을 때, 각 군에서의 급성 췌장염의 발생률은 100 환자-년수(patient-years)당 0.1 이었습니다 (시타글립틴 군에서는 4708 환자-년수 중 4명의 환자에서, 대조군에서는 3942 환자-년수 중 4명의 환자에서 보고됨). TECOS 심혈관계 안전성 임상시험에서, 급성 췌장염의 발생률은 시타글립틴 군에서 100 환자-년수(patient-years)당 0.11(23/7,332명, 25건), 위약 군에서 100 환자-년수(patient-years)당 0.06(12/7,339명, 17건)으로 보고되었습니다. [1.경고, 시타글립틴, 2)췌장염 항, TECOS 심혈관계 안전성 임상시험 항 참조]
시타글립틴
시타글립틴 단독요법에서 인과관계 평가와 관계없이 5% 이상의 빈도로 보고되고 위약보다 빈번히 보고된 이상반응 중 가장 빈번히 보고된 것은 비인두염이었습니다.
서방형 메트포르민
글리벤클라미드 요법에 서방형 메트포르민 또는 위약을 추가 병용투여한 24주 임상시험에서, 병용투여군에서 가장 빈번히 보고된 이상반응(6% 초과)고 위약보다 높은 빈도로 보고된 이상반응은 저혈당(서방형 메트포르민 13.7%, 위약 4.9%), 설사(12.5%, 5.6%) 및 구역(6.7%, 4.2%) 이었습니다.
TECOS 심혈관계 안전성 임상시험 (TECOS: Trial Evaluating Cardiovascular Outcomes with Sitagliptin)
시타글립틴 심혈관계 안전성 임상시험의 ITT(Intent-to-treat)군에 시타글립틴을 매일 100mg (또는 기저상태에서 eGFR ≥ 30 및 (50mL/min/1.73m²인 경우 매일 50mg)를 투여받은 환자 7,332명과 위약을 투여받은 환자 7,339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임상시험에서 시타글립틴 또는 위약은 당화혈색소(HbA1c) 및 심혈관계(CV) 위험 인자와 관련된 각각의 일반적인 치료에 추가로 투여했습니다. 시타글립틴 투여 시 주요한 심혈관계 질환이나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위험을 높이지 않았습니다(11. 전문가를 위한 정보 항 참조). 보고된 중대한 이상반응의 발생빈도는 시타글립틴 투여군에서 12.7%, 위약 투여군에서 12.4%로 유사하였습니다.
중증의 저혈당의 발생빈도는 시타글립틴 투여군에서 2.2%(160명, 100 환자-년수(patient-years)당 0.78), 위약 투여군에서 1.9%(143명, 100 환자-년수(patient-years)당 0.70)로 보고되었습니다. 인슐린 및/또는 설포닐우레아를 투여 받은 환자들 중, 중증의 저혈당 발생빈도는 시타글립틴 투여군에서 2.7%(138/5,021명), 위약 투여군에서 2.5%(125/4,931명)였고, 인슐린 및/또는 설포닐우레아를 투여받지 않은 환자들 중, 중증의 저혈당 발생빈도는 시타글립틴 투여군에서 1.0%(22/2,311명), 위약 투여군에서 0.7%(18/2,408명)였습니다. 확진된 급성 췌장염의 발생빈도는 시타글립틴 투여군에서 0.3%, 위약 투여군에서 0.2%였습니다.
실험실적 검사
시타글립틴
시타글립틴과 속방형 메트포르민을 투여한 군에서 실험실적 이상반응의 발생률은 7.6% 이고, 위약과 속방형 메트포르민을 투여받은 군에서는 8.7% 으로 유사하였습니다. 임상시험에서 호중구의 증가에 기인한 백혈구치의 약간의 증가(위약 투여시와 약 200 cells/μL 차이; 평균기준치 약 6600 cells/μL)가 관찰되었습니다. 이런 차이는 많은 연구에서 나타났으나 모든 연구에서 나타난 것은 아니며, 임상검사치의 변화가 임상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12주간의 연구에서 91명의 만성 신장애환자와 37명의 중등도의 신장애환자가 시타글립틴 50mg으로 무작위 배정되었고 같은 정도의 신장애를 가진 14명의 환자는 위약으로 배정되었습니다. 혈청크레아티닌의 평균(표준오차) 증가는 시타글립틴 투여군에서 0.12mg/dL(0.04), 위약 투여군에서 0.07mg/dL(0.07)이었습니다. 위약과 비교시 혈청크레아티닌 증가의 임상적 유의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메트포르민염산염
29주간의 메트포르민의 대조임상시험에서 약 7%의 환자에서 시험 전에 정상이었던 혈청 비타민 B_{12}값이 임상적 증후 없이 정상 이하로 감소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그러나, B_{12}-intrinsic factor complex로부터 B_{12}흡수가 저해됨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는 이러한 감소는 매우 드물게 빈혈을 수반하였으며, 메트포르민의 투여 중지나 비타민 B_{12}를 보충함으로써 빠르게 회복됩니다.
2) 시판 후 이상반응
다음은 시타글립틴의 시판 후 메트포르민 병용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다른 혈당강하제제의 병용투여 여부와 관계 없이 추가로 확인된 이상반응입니다. 이 이상반응은 불특정 다수의 안구집단에서 자발적으로 보고된 것이기 때문에, 발생빈도를 신뢰성 있게 예측하거나 약물노출과의 인과관계를 확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나필락시스, 혈관부종, 발진, 두드러기, 피부혈관염 및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을 포함한 박리성피부질환을 포함하는 과민반응 [1. 경고, 시타글립틴, 1) 과민반응 및 2. 다음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마십시오 항 참조]; 간효소치 상승; 치명적/비치명적 출혈성 또는 괴사성 췌장염을 포함하는 급성 췌장염 [1. 경고, 시타글립틴, 2) 췌장염 항 참조]; 급성신부전(때로 투석을 요함)을 포함한 신기능 악화; 상기도 감염; 비인두염; 변비; 구토; 두통; 중증 및 장애를 동반하는 관절통 항 참조]; 수포성 유사천포창 [5. 일반적 주의, 17) 수포성 유사천포창 참조]; 근육통; 사지통; 등 등증; 간질성 폐질환; 소양증; 혈소판감소증; 횡문근융해

5. 일반적 주의
1) 유산신증: 유산신증은 드물기는 하나 심각하며, 이 약의 치료중 메트포르민이 축적되어 나타나는 대사성 합병증이다.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 급성신기능악화, 심폐질환 및 패혈증 상태와 연관되어 있으며 60%가 치명적이다. 유산신증은 조직의 유의한 관류저하와 저산소증이 있을 때, 당뇨병을 포함하는 병리생리학적 상태와 결부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산신증은 혈중 젖산 농도 증가(5mmol/L 초과), 혈중 pH저하(7.35), 음이온 간극 차이가 늘어나는 전해질 불균형과 젖산/피루브산염의 비가 증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유산신증의 유산반응의 원인이라고 여겨지는 경우, 메트포르민의 혈중농도는 일반적으로 5μg/mL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메트포르민을 투여 받은 환자에 있어서 유산신증의 발현에 대한 보고는 매우 적습니다(전간 환자 1,000명당 약 0.03건, 처량적인 경우는 전간 환자 1,000명당 약 0.015건). 보고된 경우는 주로 많은 내 · 외과적인 문제가 병합된 경우와 많은 약물의 복합투여 등의 상태에서, 내인적 신장질환과 신장 관류저하를 포함하는 신기능이 유의하게 저하된 당뇨병 환자에서 일차적으로 발생된 것 입니다 (몸법용량, 신장애 환자 항 참조). 유산신증의 위험은 신기능 저하의 정도와 환자의 나이에 따라 증가됩니다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메트포르민염산염 항 참조).
덧붙여 메트포르민은 저산소증, 탈수, 패혈증과 관계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각 투여를 중지해야 합니다. 간기능이 손상된 경우 젖산 배설능력이 유의적으로 저하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간질환의 임상적 또는 실험실적 소견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이 약을 투여하지 않습니다. 알코올은 메트포르민이 젖산대사에 영향을 미치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약을 투여 받는 동안 금 · 만성적인 알코올의 과량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유산신증의 시작은 때때로 구별이 어렵고 권태, 근육통, 흐흡곤란, 무력증과 복부 통증과 같은 비특이적 증상들을 수반합니다. 신중이 더 심해질 경우 체온저하, 저혈압과 저항성 서맥부정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환자와 의사는 이러한 증상들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환자는 만약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의사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혈청 전해질, 케톤, 혈당, 혈중 pH, 젖산농도의 이 약의 혈중 농도도 유산신증을 확인하는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산신증의 의심이 큰 경우에는 젖산의 측정결과를 기다릴 것 없이 필요한 처치를 합니다. 특히, 투여 개시 초기 투여량을 증가한 경우에는 유산신증이 발병하기 쉬우므로 주의합니다. 치료 초기에 환자가 메트포르민의 특정 용량에서 안정화되면 흔히 위장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후기에 나타나는 위장관 증상은 유산신증이나 다른 심각한 질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메트포르민을 투여 받은 환자의 공복 시 정맥 혈장의 젖산 농도가 정상상한치 이상이지만 5 mmol/L 이하인 경우, 유산신증이 임박했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으며, 잘 조절되지 않은 당뇨병이나 비만, 지나친 육체활동 또는 검체를 다루는데 있어 기술적인 문제와 같은 다른 기전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유산신증은 케톤산증(케톤노증과 케톤혈증)의 증거가 없는 대사성 산증이 나타나는 당뇨환자에서 의심해야 합니다.
유산신증은 입원치료를 요하는 내과적 응급상황입니다. 이 약을 투여한 환자에서 유산신증이 일어난 경우, 약물을 즉시 투여 중지하고 즉각 일반적인 보조요법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약은 투석이 가능하기 때문에(장효한 혈액학적 조건에서 170mL/분에 이르는 청소율), 산증을 정상화하고 축적된 약물을 제거하기 위해 즉각적인 혈액 투석이 추천됩니다. 이러한 처치는 때때로 즉각적인 증상 호전과 회복을 가져옵니다.
2) 간장애 환자: 간장애는 유산산증의 몇몇 경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약은 임상적 혹은 실험실적으로 간질환의 증거가 있는 환자에게는 피해야 합니다.
3) 신기능 모니터링: 메트포르민과 시타글립틴은 대부분 신장으로 배설된다고 알려져 있고 메트포르민의 축적의 위험은 신기능의 정도에 따라 증가합니다. 따라서 연령에 따른 정상상한치 이상의 혈청크레아티닌치를 갖는 환자는 이 약을 투여하면 안됩니다.
이 약은 치료 시작 전과, 치어도 매년 신기능 검사를 하고 정상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정상치보다 낮은 크레아티닌 청소율의 환자 및 고령자는 적어도 1년에 2-4회는 신기능 검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크레아티닌 청소율(45ml/min 또는 사구체 여과율 (45ml/min/1.73m²)인 경우에 약 투여를 중지합니다. 탈수증상(설사하거나 지속적인 구토 또는 설사)이 있거나 신기능이 영향을 주는 약물투여를 시작하는 경우 (고혈압 치료제 또는 이뇨제 및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와 같은) 등 급격한 신기능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급성 상황에서는 즉시 그리고 일시적으로 메트포르민 투여를 중단해야 합니다.
4) 비타민B_{12}치: 29주 동안 지속된 임상시험에서 메트포르민을 투여 받은 환자의 약 7%에서, 임상적 증후 없이, 시험 전에 정상 혈청 비타민 B_{12}치가 정상 이하로 감소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는 B_{12}-내부인자 복합체로부터 B_{12}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빈혈과의 연관성은 거의 없으며, 메트포르민의 투여 중지나 비타민 B_{12}를 보충함으로써 빠르게 회복됩니다.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는 매년 혈액학적 수치들을 검사해야 하며, 명백한 비정상소견은 적절히 평가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특정 개인(비타민 B_{12}나 칼슘 섭취 혹은 흡수가 부적절한 사람들)은 정상 이하로 비타민 B_{12}치 감소할 소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는 2 ~ 3년 간격으로 정기적인 혈청 비타민 B_{12}측정을 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5) 알코올 섭취: 알코올은 정산 대사에 대해 이 약이 미치는 영향을 증대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약을 투여하는 동안 금성 또는 만성적인 알코올의 과량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6) 수술: 수술과정동안은 이 약 투여를 일시적으로 중지해야 하고(음식과 수액의 섭취에 제한이 없는 가벼운 과정은 제외) 환자의 경구적 섭취가 회복되고 신기능이 정상으로 평가된 후 다시 투여합니다.
7) 조절되던 제2형 당뇨환자의 변화 : 전에 이 약으로 제2형 당뇨병이 잘 조절되었던 환자에서 실험실적 비정상 소견이나 임상적 질환 (특히, 모호하게 정 정의되지 않는 질환)이 발현되면, 즉시 케톤산증이나 유산산증의 발병에 대해 평가해야 합니다. 혈청 전해질, 케톤, 혈당에 대해 검사하고, 필요하다면, 혈중 pH, 젖산, 피루브산염과 메트포르민의 농도에 대해서도 검사합니다. 만약 어떠한 형태라도 산증이 나타났다면, 이 약의 투여를 즉시 중지하고, 다른 적절하고 올바른 조치를 취합니다.
8) 저혈당
시타글립틴
임상시험에서 시타글립틴을 단독투여하거나 저혈당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약물(메트포르민 또는 치아졸리딘디온)과 병용투여 시 저혈당의 발생빈도는 위약에서 보고된 것과 유사했습니다. 다른 혈당저하제의 병용투여가 전혀적으로 그렇듯이, 시타글립틴과 인슐린 또는 설포닐우레아를 병용 투여 시 저혈당이 관찰되었습니다(4. 이상반응 항 참조). 설포닐우레아 또는 인슐린에 의한 저혈당 발생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설포닐우레아 또는 인슐린의 감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몸법 용량 항 참조)
메트포르민염산염
저혈당은 일반적인 사용 환경 하에서 메트포르민을 단독 투여한 환자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나, 열량 섭취가 불충분한 경우, 격렬한 운동이 영양 섭취로 보충되지 못한 경우나 다른 혈당강하제(설포요소, 인슐린 등) 또는 알코올을 병용 투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특히 고령자, 쇠약하거나 영양불균형인 환자, 부신이나 뇌하수체 부전 환자 또는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 저혈당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저혈당은 고령자, β-아드레날린 차단 약물을 투여하는 사람에서는 식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메트포르민의 투여에 의해 저혈당 증상이 안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설탕(자당)을 투여하며, α-글루코시다제 저해제(아카보스, 보글리보스)와의 병용에 의해 저혈당 증상이 안정되는 경우에는 포도당을 투여합니다.
9) 신기능이나 메트포르민 대사 또는 배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약물과의 병용투여: 신기능에 영향을 끼칠 수 있거나 유의한 혈액 동태학적 변화를 야기시키거나 신배관 배출로서 배설되는 양이온 약물과 같이 메트포르민의 대사 또는 배설을 저해할 수 있는 약물과의 병용투여는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10) 저산소증 상태: 어떤 원인에 의한 심혈관계 허탈(쇠), 급성 울혈성심부전, 급성 심근경색과 저산소증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다른 조건은 유산산증과 연관되어 있으며 신전 질소혈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약의 치료를 받는 환자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이 약의 투여를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11) 특정 직업의 환자 : 이 약의 성분 중 메트포르민으로 인해 드물게 심한 유산산증, 중증의 저혈성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고소작업, 자동차 운전 등에 종사하고 있는 환자에 투여할 경우에는 주의합니다. 또한, 유산산증